

## 10월 '광양 관광의 달' 뜬다...각종 문화행사 풍성

내달 1일 '광양 관광 도약 원년' 선포

관광객 대상 이벤트 등 전방위 홍보 돌입

광양시는 광양관광 도약 원년의 이정표가 될 '광양관광의 달'의 성공적 궤도 진입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승격 30주년을 맞아 10월 1일 오후 6시 '광양 해비치로' 마동체육공원에서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해오름육교' 준공과 개통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로

광양관광의 달 서막을 연다.

이 자리에는 광양시민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관광전문가, 랜드여행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 관광의 달을 축하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하게 된다.

시는 광양관광의 달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와 이벤트를 기획하고, TV광고와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

는 등 전방위 홍보에 돌입했다.

구봉산전망대, 윤동주 유교 보존정병옥 가옥 등 지정된 광양 대표관광지를 3개소 이상 방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인증사진을 게재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 시가 운영하는 SNS이벤트의 댓글 정답자에게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주요 관광 지 입장료 (10~20%), 시티투어 이용료(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광양관광의 달 스티커가 부착된 음식점, 숙박시설에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19일에는 코리아올레길의 남파랑길 광양구간(섬진강꽃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망덕포구 등 숨겨진 광양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날 수 있다.

매주 금·토요일에는 광양을 서천변과 중마동 산화섬을 중심으로

버스킹과 지역 예술품 및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운영된다.

특히 시 승격 3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0월 5일 K-POP 슈퍼 콘서트(광양공설운동장), 12일 미스트롯 공연(중마동 일반부두) 등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이 10월 한 달 내내 시 전역을 달군다.

광양=김승호 기자

## 곡성군, 수돗물 절약 및 상수도 우수율 제고에 앞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하고 내년에는 가정 내 누수 무료 탐사 예정

곡성군은 물 절약을 위해 수돗물 누수를 확인하고 군민과 함께 누수점검 등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연간 약 4백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지 2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2개소, 가압장 4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86개소 총 141개의 상수도 시설을 운영한다.

하지만 공급된 총 수돗물 중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비율(우수율)은 51.9%에 불과하고, 우수율은 43.1%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물 절약 홍보에 나서고 있다. 먼저 학교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방문해 물 절약 운동을 실천을 요청했다. 또한 물 절약 홍보물 및 누수 점검 홍보물 등을 반상회

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들에게 물 절약을 위한 운동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단기적 처방 외에도 우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처방도 준비 중이다. 먼저 229억 원을 투입해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대상지 내 우수율을 8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업비 49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블록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곡성군은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에서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발표했다. 군은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들러 수돗물 누수 확인을 통해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누수 여부 자가 확인법도 안내하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평소 보다 수도요금 많이 나왔을 때, ▲벽 또는 지하실로 물이 새어 나올 때, ▲보일러에 물을 자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장판 밑에 습기가 많은 경우 누수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집 안 수도꼭지 전체를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했을 때 침이 회전하면 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물 절약은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물 절약 실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곡성=김평휘 기자



잘 익은 아리수 사과

24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전시포장에서 어린이들이 농진청이 개발한 아리수 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 함평 이전 합의...2027년까지 마무리

신광면 송사리 일원

충남 천안에 자리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중 추장)가 함평으로 이전한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과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남 국립축산과학원 원주 본원에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이행합의각서에서 나란히 서명하고 함평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이주민 지원 대책 등 이견이 일부 존재했지만 지난해 11월 이전 후보지 우선협상자로 함평군이 선정된 이후 10개월여 만에 큰 잡음 없이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민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안에 이전 비용 산출을 위한 종합계

획 수립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까지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함평군도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 이주민 지원 대책, 주변 방역 대책 등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축산과학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주민 지원 대책을 비롯한 이전 제반 사항들이 아직 산적한 만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남도와 함께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이행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4개 부서(가축재량평가, 낙농, 양돈, 초지사료) 20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스마트 축산 연구기관으로, 2027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612ha)에 모두 이주한다.

함평=김평준 기자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개막식 10. 1.(화) 18:00 장성공설운동장

#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2019

10. 1.(화)~ 10. 13.(일) 장성군 황룡강 일원

황룡강의 10억 송이 아름다운 꽃은 10.20.(일) 까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장성축령산 편백산소속제  
10.5.(토) 축령산 숲속쉼터

영무새특별체험관 9.24. OPEN